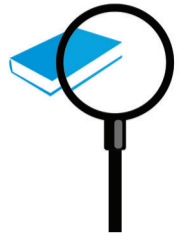


# 광주는 생고기·제주는 옥두어...사시사철 맛있는 장날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제철 맛은 장날입니다

김진영 지음

밥을 주문하니 주말에 밥을 퍼주는 식당이 있다. 강진 병영에 있는 어느 돼지불고기 백반집이다. 여기에 갓 구운 불고기와 막 퍼준 밥이 주는 맛의 오묘는 수사가 필요 없다. 파채나 강진 특산물 토하것을 얹어 먹으면 그만이다. 한상 가득 차려진 개미진 전라도 손맛은 허리띠를 풀게 한다. 백반은 찬의 숫자보다 맛이 제일인 것이다.

식품 MD를 전직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김진영 작가의 '제철 맛은 장날입니다'를 읽다 보면 당장이라도 오일장을 찾아야 할 듯하다. 발품을 팔아 전국 오일장을 다니며 건져 올린 '싱싱한 이야기'는 맛깔스럽게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전국의 산지와 제철 식재료를 찾아 28년을 보냈다. 지구를 25바퀴는 돌았을 거다. 그동안 100군데의 장터를 돌며 기존의 오일장 콘텐트와는 다른 정보를 소개해왔다. 이번엔 발간한 책은 세 번째 오일장 이야기 시리즈다.

책에 소개된 곳은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다. 저자는 평소 '맛집은 없다'고 본다. 맛 고유의 끌림보다 미디어에 소개돼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어 모으는 곳은 진정한 맛집이라 할 수 없다.

저자는 모든 이들이 '이거다' 할 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를 말하고 싶었다. 보기에 좋은 먹거리보다는 계절에 따라 마드는 것을 소개하는 데 방점을 둔 이유다. 또한 저자는 전국 오일장을 순회하며 로컬푸드 매장도 들른다. 숨겨진 맛을 발굴해 보여주고, 잊혀져 가는 시장의 가치를 상기하자는 취지다.

광주 오일장은 정과 흥이 넘친다. 말바우시장에는 전남의 향구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이 넘쳐난다. 다른 것도 많지만 특히 어물전이 많다. 차로 한 시간 거리인지라 목포산이 많다. 그 가운데 저자는 셋서방고기라 불리는 '금풍생이'를 주인공이라 생각한다. "점도 맛있지만 구우면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인 생선이 금풍생이다. "그냥 지나치면 집으로 가는 300km 내내 후회해 밀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저자가 보기에 광주는 먹을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연포탕은 물론 육전도 맛있다. 무엇보다 생고기를 빼놓을 수 없다. "굳이 광주에서 생고기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세 가지 부위의 생고기를 한 번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추장, 참기름, 마늘 다진 것을 넣은 육장을 만들어 찌어 먹으면 술과 밥을 함께 부르는 안주이자 반찬이 따로 없다."



오일장에서 맛보는 비빔밥은 계절의 진미를 느끼게 한다. <상상출판 제공>



평남면옥

제주 오일장에서 옥두어를 추천한다. 일반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생선이다. 대부분 갈치나 방어, 옥돔을 말하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산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옥두어는 옥돔과 다른 생선이다. 시장 상인에 물어 보니 "맛은 옥두어가 좋고 가격은 옥돔이 높다"고 말한다.

경남 함안 오일장에도 특산물이 많다. 봄과 여름 사이에 들른 장터는 싱싱한 채소들로 천지다. 씨감자가 보이면 봄을 알리는 것이고 고구마 순이 보이면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함안 오일장에서 맛본 비빔밥도 기억에 남는다. 전주, 진주, 하동 지역마다 비빔밥이 있지만 함안의 비빔밥도 특별하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정구지전을 내오는 곳이 있다. 특이하게도 다른 곳과 달리

고추장이 없다. 양념장이 밑에 깔려 있어 비비다 보면 더 넣게 된다. "간장, 고추장, 파, 고추를 넣고 만든 양념장"은 일미여서 "파파람에 게 눈 감춘 듯 사라졌다"는 표현이 눈길을 잡아 끈다.

사람이 먼저이며 밥이 먼저인 보성 오일장도 가볼 만한 곳이다. 꼭 먹고 싶은 것이 국수인데, 메뉴를 주문하면 직접 면을 만들기 시작한다. "면을 맛보고 국물을 음미하니 꾸미의 많고 적음은 부질없다"는 표현이 이색적이다.

이밖에 책에는 장터는 작지만 잔정이 넘치는 순창 오일장, 숨겨진 보물이 많은 거제의 오일장, '봄을 붙잡아' 부쳐 낸 나물전이 맛있는 산청의 오일장이 소개돼 있다. <상상출판·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댓국

## 중급 한국어

문지혁 지음

작가를 꿈꾸는 지역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로 일한다. 뉴욕의 대학에서 일했던 경험은 그에게 꼭 글로 남기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다. 한국어로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미묘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비정규직 강사로 대학에서 강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결혼을 하고 딸이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딸은 성장하며 언어를 배워가고, 이에 따라 지역도 아이와 함께 낯선 언어를 배워가게 된다.

지난 2010년 단편 '체이서'를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한 문지혁 작가의 장편소설 '중급 한국어'는 딸과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모티브가 작품이 됐다. 대학에서 글쓰기와 소설창작을 가르치는 문지혁 작가는 지금까지 장편 '비블리온', '체이서'와 소설집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사자와의 이틀 밤' 등을 펴냈다.

이번 소설은 지난 2020년 발간한 '초급 한국어'를 이어 펴낸 작품으로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최초의 '시리즈 인 시리즈'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전작에서 작가가 뉴욕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실제 에피소드를 형상화한 것처럼 이번 소설도 현실에서 소설을 쓰고 가르치는 작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소설은 결혼 생활과 육아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 그 시절을 겪어온 이들에게 추억을 소환하는 계기를 준다. 또한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처럼 언어를 배우는 것, 소설 쓰기 배우는 것은 결국 자서전을 쓰는 과정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신만의 글쓰기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설 제목처럼 '중급' 단계는 나의 이야기를 받침 삼아 일상의 모습에서 문학적 순간을 탐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주식회사 이야기

이준일 지음

코로나 19 이후 많은 기업들이 경영은 물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또한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 또한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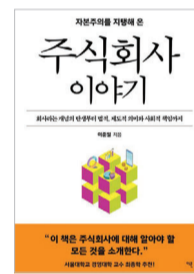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마주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실체를 일반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회사를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주식회사와 연관돼 으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주식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온 동력과 과정은 무엇일까? 한번쯤 질문해봐야 할 부분이다.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이준일 교수가 펴낸 '주식회사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온 주식회사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제인 '회사라는 개념의 탄생부터 법적, 제도적 의미와 사회적 책임까지'가 말해주듯 책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것들을 아우른다.

저자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운영부터 자금조달, 형태뿐 아니라 어떤 기업에 살고 있고, 어떤 기업의 형태를 추구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또한 주식회사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의 흐름은 물론 구조와 운영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저자는 "현재의 기업이나 주식회사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정도의 차이일 뿐 현대 사회도 여전히 과거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제도는 과거의 많은 한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해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론·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트러스트

에르난 디아스 지음·강동혁 옮김

구로사와 아카리 감독의 영화로도 알려진 아쿠타카와 류스노케의 소설 '라소몽'은 동일한 사건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첫 작품 '먼 곳에서'가 풀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문단의 주목을 받은 에르난 디아스의 장편소설 '트러스트'는 20세기 초 미국 월 스트리트를 지배했던 앤드루 베넬과 밀드레드 베넬 부부에 대해 네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뉴욕타임즈', '타임' 등 올해의 책 톱 10을 비롯해 36개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고, HBO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책은 소설, 자서전, 회고록, 일기 형식으로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경제, 금융, 돈, 권력, 계급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첫 챕터 '채권'은 해럴드 베너라는 가상의 작가가 쓴 소설 형식이다. 담배 무역으로 성공해 부를 축적한 집안의 후손 벤저민 레스크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어지는 '나의 인생 이야기'는 미완성 자서전이다. 앤드루 베넬, 즉 '채권'에 등장하는 벤저민 레스크의 실제 모델인 인물이 소설의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의 삶과 아내 밀드레드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회고록을 기억하며'는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글로 앤드루 베넬의 비서이자 자서전 대필작가로 일했던 경험을 회고록으로 풀어내며 그녀의 시각에서 본 베넬 부부의 모습 보여준다. 마지막 챕터 '선물'에서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그려졌던 인물 밀드레드 베넬이 직접 쓴 일기가 등장한다.

소설은 각각의 이야기에 걸맞는 문체와 분위기를 구현, 정교하게 구축된 네 개의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끼치며 매끄러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문학동네·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린궁 **프리미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리미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